

#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신상래
제 목	원 다섯 늦은 나이에 법학을 전공하다		
<p>□수기 신청자에 대한 간략 소개</p> <p>신청자는 1980년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은행에 입행하면서 만 34년 6개월을 근무하고 건강상의 이유(2013. 8월, 1차 폐암진단을 받고 첫 번째 수술을 받음)로 만 53세, 조금은 이른 나이에 특별퇴직을 합니다. 기나긴 투병생활 중(2021. 3월 2차 폐암진단을 받고 두 번째 수술을 받음)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게 됩니다. 방송통신대 재학중지인의 요청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입문하면서 비영리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주도하게 됩니다. 현재는 대외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평가받는 사회적기업 (드림워드양상블)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수시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외부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보고자 2015년 1월, 늦은 나이에 또한 투병생활 중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 투병생활과 직장생활, 학업의 3중고를 극복해 가면서 2021. 2월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p> <p><b>1 참여목적</b></p> <p>□ 법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절실</p> <p>안정되고 체계적인 조직(은행)에서 오랜 기간(1979. 9. 24. ~ 2014. 2. 14)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분야만을 답습하며 무탈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무에서 유를 만들기 위한 신설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게 되면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이전 직장 생활과는 판이하였습니다. 신설 조직을 만드는 일이라 모든 현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비영리 기관 특성상 행정기관과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공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였습니다. 사무행정 업무 담당자로서 시시각각 당면하는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은 설립 초기의 조직 안정화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영역, 직원들과의 관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당장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세법, 비영리조직을 만들기 위한 비영리 조직관리 등의 제도 파악과 행정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급선무로 다가왔습니다.</p>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간의 경험과 단편적인 법률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만 향후 조직의 성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닥친 난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많이 늦었지만, 그리고 건강도 크게 염려되었지만 체계적인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조직의 기초를 탄탄하게 구축할 목표를 가지고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관업무, 특히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법의 영역이 생소

사회적기업, 특히 비영리기업(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조직 특성상 중앙의 행정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성남시)와의 인·허가를 위한 행정업무 협조가 빈번한 상황에서, 행정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행정법은 그간의 은행 업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은행에서는 주로 민·상법, 주식회사법, 소송과 강제집행법 등을 접함), 그리하여 법학과의 많은 법 과목 중 특히 행정법이나 비영리조직 경영론, 세법, 근로기준법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학 과목에 더욱 집중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에 대한 학습은 설립초기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업력에 비하여 조직의 인지도나 성장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계기는 물론 단기간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던 요인도 체계적인 법과 규정의 이해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립을 주도한 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위드 앙상블([www.dreamwith.or.kr](http://www.dreamwith.or.kr))”이며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전문연주단체로서 사회적기업 인증, 전문예술법인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허가, 경기도 착한 기업 지정 등 인·허가를 통하여 업계에서 모범사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법인에 경험 공유

사회적경제 분야의 스타트업 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대다수의 신설법인 참여자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영업 및 마케팅도 좋지만 신청인이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조직의 기초인 사무행정 분야에는 관심이 적고(일단 설립자가 문외한인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경우 타 업무 대비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신청인의 시각에서는 설립초기 조직 내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

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조직구성 위에 아이디어와 영업, 마케팅이 결합될 때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조직구성의 토대가 부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어떤 업무보다 우선순위로 조직의 구성을 탄탄하게 구축하데 집중하였으며, 초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직의 힘은 조금씩 탄력을 받아 가면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무행정 기틀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법과 제도, 규정 등의 빠른 이해가 기본이며, 이러한 법과 제도의 내용을 우리 만이 아닌 타 기관과 함께 공유하면서 후발 기업에게 동일한 시행착오를 줄여보고자 노력 중이며, 법과 규정에 근거한 이론의 정립과 현장의 경험을 정립하기 위하여 법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 학위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 해소

오랜 기간의 직장 생활 중에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던 대학진학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보다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나 민간기관의 대외 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서에는 빠짐없이 조직구성원의 성과나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력 및 전공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졸업장이나 전공분야에 대한 경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냉철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시장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성장시키면서 후발 기업에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실력과 경험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청인의 판단은 매우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건강도 허락되지 않았고 용기도 필요했지만 늦게나마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 법을 전공하는 법학도로서의 길로 들어서서는 동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정되고 체계적인 조직(은행)에서 오랜 기간(1979. 9. 24. ~ 2014. 2. 14)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분야만을 답습하며 무탈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무에서 유를 만들기 위한 신설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게 되면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이전 직장 생활과는 판이하였습니다. 신설 조직을 만드는 일이라 모든 현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비영리 기관 특성상 행정기관과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공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였습니다. 사무행정 업무 담당자로서 시시각각 당면하는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은 설립 초기의 조직 안정화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영역, 직원들과의 관계를 규정 한 근로기준법, 당장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세법, 비영리조직을 만들기 위한 비영리 조직 관리 등의 제도 파악과 행정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급선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간의 경험과 단편적인 법률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만 향후 조직의 성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닥친 난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많이 늦었지만, 그리고 건강도 크게 염려되었지만 체계적인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조직의 기초를 탄탄하게 구축할 목표를 가지고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2 학습과정

□ 주변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환경적인 사정으로 제때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현실에 실망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힘든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묵묵히 정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신청인도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 투병생활중에도 학업에 대한 열의는 식지 않았다.

신청인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원을 천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모범적인 은행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13년 7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2014년 2월에 퇴직하게 되었으며 퇴직 이후의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학업과 직장생활 및 건강을 돌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2차례 폐암 진단과 그에 따른 제거 수술 (2013년 8월, 2021년 3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체력적인 문제 (특히 시력저하 문제 등)는 매순간 저에게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시간임에도 하루의 소중함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수록 정신적으로는 더욱 강인하게 되었으며 오랜 직장생활 중 미뤄둔 숙제처럼 여겨졌던 대학졸업과 학위취득의 꿈을 위하여, 또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마침내 2021년 2월 졸업하면서 40년 이상 미뤄왔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과 인내력이 결실을 맺음

그간의 학습과정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노안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이로 인한 고통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방송대의 학업 특성상 대부분

의 강의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면서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력 저하로 청각을 이용한 학습에 집중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에서는 문제지가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착용했다가 벗는 행동을 수없이 반복해가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학업문제로 계속 미루어오던 백내장 및 노안 수술을 올해 5월에 하였으며 현재 시력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학습을 진행하면 할수록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하고 싶은 마음 또한 지속적으로 다가왔지만 그 때마다 "내가 왜 대학에 진학했고 법공부를 하고 있나?"라는 초심의 마음을 환기시키며 동요하는 마음을 다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업의 포기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고 이는 곧 60년간 지켜온 제 인생의 모토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도전하면 반드시 나 자신이 이해될 때까지 추진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조금은 완벽하고 지구력을 가진 성격이 이러한 3중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 □ 비록 한 학기이지만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됨

주간에는 업무로, 야간에는 학습으로, 주말에는 부족한 과목의 보충 및 폐기능 유지를 위하여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재학 중 이수한 전공 일반, 교양 등의 48개 과목 중 본 학기 성적이 D, F학점을 받아 계절학기로서 성적을 보충해 가면서 이수한 과목이 7개 과목이 될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암기력, 이해력 등의 저하를 수반하였으며 모든 면에 있어서 자존감이 상실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도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력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으며 그 결과 2021. 1학기 성적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반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 법학과 지원의 효과성을 입증

학습과정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동기부여는 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기업의 초기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의 학습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많은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행정법, 세법, 노사관계법, 비영리조직 경영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과목을 학습해 가면서 새로운 법지식에 대한 실력이 늘어 갔으며 배우는 법이론과 현장에서의 업무가 조화를 이루면서 건실한 조직이 만들어 지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법지식을 터득해가면서 더욱 열심히 법과 규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3 학습성과

#### □ 평소에 항상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생활자세 실천

방송대 진학전에도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구열을 불태우면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도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수료, 신용보증기금 주관의 신용상담사 자격증 취득, 국가자격고시인 주택관리사 도전, 방송통신대 도전 등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도전을 실천하면서 그 간 협소했던 저의 경험과 지식 세계를 조금이나마 탈피하고 더 넓고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기 위하여 도전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 전공분야인 법학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주도

현재 드림워드 앙상블이라는 비영리조직인 사회적기업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초기 설립부터 현재의 운영까지 모든 사무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과 규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습득한 법의 내용이 현장 실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능력 있는 인적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은 신청인에게 큰 성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한 이면에는 모든 사회생활이나 조직 업무의 기초가 법과 규정이라는 상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실제로 기업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실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 법학을 기반으로 단시일내 현장의 성과로 입증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조직관리와 운영에 있어 단시일에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설립 후 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주관의 해외 선진사례 연구 연수단에 포함되어 사회적 경제의 태동 지역이며 현재도 매우 활발하게 전세계 사회적경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스페인 빌바오 지역 (사회적경제 성공의 롤모델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탐방,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다녀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제공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조직 설립 후 약 5년 사이에 5개 이상의 정부표창(신청인이 주도한 법인명의로 표창) 등 이론과 현장이 조화롭게 접목하면서 시너지를 이루어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대학의 많은 학과중 법학을 전공한 것은 신의 한수로 평가

법학전공 중 특히 도움을 받은 분야는 행정법, 세법, 근로기준법, 비영리조직법 등 많은 과목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행정법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신청 및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세법은 주지하다시피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즉시 대응해야 하는 세무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영리조직법 및 근로기준법 등은 설립초기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학문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지침서나 일반적인 처리 규정 등이 많이 부족하여 비영리조직법은 비영리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법과목으로 기억됩니다.

#### 4 향후포부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학원에 도전 예정

법학사에 만족하지 않고 2022년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심도 있게 법학을 공부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첫 단계로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와 접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법과목이 무엇일까를 고민중에 있으며 그간의 현장경험 및 인생경험, 그리고 은행생활 중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고 그 기초위에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더하여 진다면 소속된 조직은 물론 사회적경제 창업을 준비중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진행

신청인이 경험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복지전문가가 대다수였으며 법학을 전공한 사무행정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복지나 영업,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영속성을 위하여는 법과 제도, 회계, 내부 조직관리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습과 이론이 바탕이 될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도 법학 과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과 규정을 현장실무에 접목하는 노력을 진행하면서 전문 컨설턴트로의 성장을 위하여 준비를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 5 시사점 (전달하고자하는 교훈)

- 안정되고 모든 것이 구비된 조건만이 축복은 아니다

순탄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태생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고난을 극복해가는 삶도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인생 전체로 볼 때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면서 강해질 때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 현실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정진한다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신청인 저 또한 병마와 싸우면서도 충실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 아직까지는 미완성이고 진행중이지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더 큰 목표를 향하여 도전할 때 주변의 여건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도 이 목표를 향하여 소걸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습니다.